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8.6

경제지표 기반한 경기 자신감 유입되며 상승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견고한 경제지표를 발표하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자 상승. 특히 고용지표도 양호했고, 무역수지에서 비석유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 관련 발표 등으로 자동차 및 2차전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경기 자신감 유입 속 금융, 에너지, 경제 정상화 관련주 또한 상승
- 반면, 헬스케어 업종을 비롯해 최근 급등했던 일부 반도체, 제약 등은 부진
- 다우 +0.78%, 나스닥 +0.78%, S&P500 +0.60%, 러셀2000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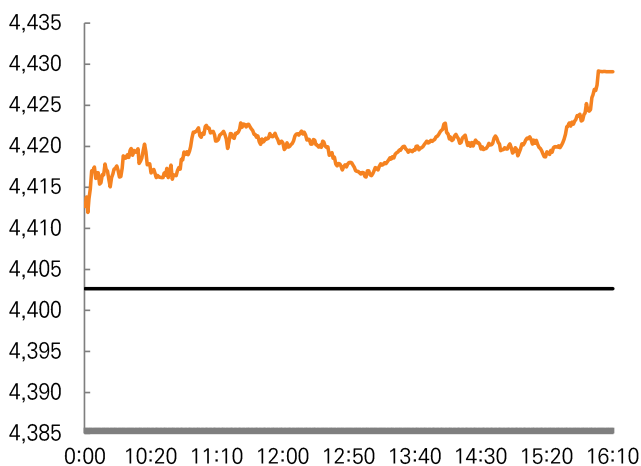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포드(+2.93%), GM(+3.26%)은 바이든의 전기차 산업 관련 행정명령 서명으로 강세
- 앨버말(+5.70%) 등 2차 전지 업종 특히 리튬 채굴 업체의 강세도 뚜렷
- 충전 업체인 블링크 차징(+3.72%), 차지포인트 홀딩스(+6.24%) 등도 급등
- 시그나(-10.9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드스 발표 불구 비용 증가 우려로 급락
- 미 행정부의 M&A 규제 우려로 AMD(-5.41%)는 급락하고 자일링스(+4.39%)는 급등
- 로빈후드(-27.59%)는 초기 투자자의 매물 우려로 급락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3.4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 예상.
- 미 증시가 전일과 달리 고용이 견고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 특히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
- 더불어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통과 기대가 높은 미국 인프라투자 관련 법안 의회 표결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하며 3,300pt에 도전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76.13	-0.13	홍콩항셱	26,204.69	-0.84
KOSDAQ	1,059.54	+1.11	영국	7,120.43	-0.05
DOW	35,064.25	+0.78	독일	15,744.67	+0.33
NASDAQ	14,895.12	+0.78	프랑스	6,781.19	+0.52
S&P 500	4,429.10	+0.60	스페인	8,836.50	+0.50
상하이종합	3,466.55	-0.31	그리스	903.33	+0.85
일본	27,728.12	+0.52	이탈리아	25,665.55	+0.69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경기 자신감 부각: 고용, 무역지표, 코로나 백신 접종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 발표(39.9만 건) 보다 감소한 38.5만 건을 기록. 물론 예상(38.1만 건)을 소폭 상회하기는 했으나 견고함을 보여줌. 여기에 연속 신청 건수가 329.6만 건에서 293만 건으로 감소해 전일 ADP가 발표했던 부진한 고용 우려를 완화. 더 나아가 대량 해고자 수도 지난달 발표치인 2만 476건 보다 감소한 1만 8,942건을 기록해 2000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수를 기록. 제약 부문에서 코로나 테스트 수요 감소로 인해 가장 많은 해고(2,249)를 발표. 산업재 제조업체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2,037건의 감원, 서비스 부문은 1,941건의 감원을 발표

이렇듯 고용관련 지표가 견고한 가운데 6월 미국의 수출입 통계에서 수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yoy +30.8%)를 기록하고 수입은 2.1%(yoy +35.3%)를 기록해 무역적자는 증가. 주목할 부분은 수입에서 비석유 수입이 전월 대비 1.7% 증가(yoy +31.2%) 한 점. 이러한 비석유 부문의 개선은 결국 미국 경제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

물론 파우치 소장이 “다가오는 코로나 돌연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약 1,000배 높은’ 델타 변이라고 주장해 코로나 우려가 부각되기는 했음. 특히 가까운 미래에 매일 1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도 부담. 그러나 백악관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백신 접종자가 7월 3일 이후 가장 많은 86.4만 건을 기록해 최근 하루 58.5만 건을 크게 상회 했고, 특히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접종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 했다고 발표해 코로나 우려를 완화

이러한 경제지표 및 코로나 이슈 등에서 시장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봤고, 그에 힘입어 미 국제금리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이 상승을 주도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확산

한편, 바이든이 오늘 자동차 제조업체에 2030년까지 차량 판매의 40~50%를 전기차로 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 특히 자동차 구매자의 인식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충전소와 세금 혜택을 포함하는 정책 등도 포함해 관련 의지를 표명.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포드(+2.93%), GM(+3.26%), 스텔란티스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탄소 배출 제로는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와 일치하며 바이든 행정부, 의회, 주 정부와 협력해 관련 목표가 가능한 정책이 제정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발표.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관련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 업종의 강세 또한 오늘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하나. 특히 중소형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의 강세가 뚜렷. 참고로 이날 행사에 테슬라(+0.52%)는 초대받지 못함. 이에 대해 백악관에서는 “오늘은 UAW(미국 자동차 노조) 관련 3대 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현재 열린 머스크는 지난 2018년 노조를 만들면 스톡옵션을 잃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트윗을 남기고 노조 활동가를 해고해 UAW와 법적인 분쟁 중. 미 노동 관계 위원회는 지난 3월 관련 트윗은 연방 노동법 위반이라며 삭제 명령을 결정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경제 정상화 관련주, 리튬 채굴업종 강세

포드(+2.93%), GM(+3.26%)은 바이든의 전기차 산업 관련 행정명령 서명으로 강세. 테슬라(+0.52%)도 상승 했으나, 이번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 관련 소식으로 앨버말(+5.70%) 등 2차 전지 업종 특히 리튬 채굴 업체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충전 업체인 블링크 차징(+3.72%), 차지포인트 홀딩스(+6.24%) 등도 급등. 백신 접종 속도 증가 소식으로 부킹닷컴(+5.85%), 카니발(+7.18%), 디즈니(+2.39%), 라스베가스샌즈(+4.92%), 델타항공(+4.28%) 등 여행, 항공, 레저 업종이 강세. JP모건(+1.26%), BOA(+1.96%) 등 금융주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엑손모빌(+0.65%), 코노코필립스(+1.86%)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강세

한편, 시그나(-10.92%)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우려로 급락. 휴마나(-2.42%), 앤섬(-4.78%) 등 여타 헬스케어 업종도 동반 하락. 유나이티드헬스(-2.46%)는 미 법무부가 체인지 헬스케어(+1.20%) 인수 차단 소송 검토로 하락. 문제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급증하고 있는 M&A가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MD(-5.41%)는 급락하고 피 인수업체 자일링스(+4.39%)는 상승, 캐나다인 내셔널 철도 피 인수업체 캔자스시티 사우스런(+3.66%)은 상승하는 등 차별화. 페이스북(-10.35%)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에서 6월 네트워크 중단이 하반기에도 계속 영향을 줄 것이라는 소식에 급락. 로빈후드(-27.59%)는 초기 투자자의 매물 우려로 급락. 우버(+3.01%)는 상승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68	대형 가치주 ETF (IVE)	+0.65
에너지섹터 ETF (OIH)	+1.59	중형 가치주 ETF (IWS)	+0.83
소매업체 ETF (XRT)	+1.21	소형 가치주 ETF (IWN)	+1.76
온라인소매 ETF (IBUY)	+0.35	대형 성장주 ETF (VUG)	+0.84
금융섹터 ETF (XLF)	+1.31	중형 성장주 ETF (IWP)	+0.75
기술섹터 ETF (XLK)	+0.55	소형 성장주 ETF (IWO)	+1.8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33	배당주 ETF (DVY)	+0.95
인터넷업체 ETF (FDN)	+0.70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02
리츠업체 ETF (XLRE)	+0.80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10
주택건설업체 ETF (XHB)	+0.66	미국 국채 ETF (IEF)	-0.36
바이오섹터 ETF (IBB)	+1.57	하이일드 ETF (JNK)	+0.17
헬스케어 ETF (XLV)	-0.41	물가연동채 ETF (TIP)	-0.35
곡물 ETF (DBA)	+0.54	Long/Short ETF (BTAL)	-0.29
반도체 ETF (SMH)	-0.11	모멘텀 ETF (MTUM)	+1.2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70.75	+1.28	-2.35	-5.31
금융	616.13	+1.24	+0.78	+3.87
유틸리티	343.05	+1.13	+1.48	+4.58
경기소비재	1,454.77	+0.91	-1.69	-0.56
통신	275.39	+0.91	+0.32	+3.60
부동산	292.74	+0.83	+1.26	+3.31
필수소비재	735.04	+0.57	-0.38	+2.00
IT	2,721.95	+0.54	+0.97	+3.44
산업재	871.48	+0.50	-0.41	+1.19
소재	520.53	-0.14	-0.89	+1.86
헬스케어	1,550.57	-0.38	+0.86	+3.6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3,300pt 도전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0.24% 상승, MSCI 신흥 지수 ETF는 0.1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3.4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부진한 미국 고용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영향으로 하락. 다만, 코스닥은 백신,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 특히 외국인인 코스피 보다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한 점이 코스닥 강세 요인 중 하나로 추정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전일과 달리 고용이 견고하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이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 물론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상승하던 AMD(-5.41%)가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하락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36% 하락한 점은 부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부각된 가운데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통과 기대가 높은 미국 인프라투자 관련 법안 의회 표결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상승하며 3,300pt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지표 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39.9만 건)를 하회한 38.5만 건을 기록했으나 예상(38.1만 건)을 하회. 4주 연속 신청건수는 39만 4,250건 보다 소폭 감소한 39.4만 건을 기록.

미국 7월 대량 해고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2만 476건을 하회한 1만 8,942건을 기록. 이는 2000년 6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고용 병목현상을 상징

미국 6월 수출입 통계에서 수출은 전월 대비 0.6%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8% 증가. 수입은 전월 대비 2.1% 증가로 전년 대비 35.3% 증가. 대 중국 수출은 전월 대비 1.5% 감소, 수입도 전월 대비 0.9% 감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유가, 국채금리, 상품환율 강세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간의 마찰로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여기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자 수요 증가 기대 심리 또한 영향을 주며 반등에 성공. 더불어 전일 하락폭이 과도했다는 점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

달러화는 견고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무역 적자폭 확대 등으로 보험권 등락에 그침. 특히 백신 접종 속도 확대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영향.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파운드화는 BOE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2개월 연속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 등 매파적인 언급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의 변화를 제한. 캐나다 달러, 러시아 루블, 호주 달러 등 상품 환율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고용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상승. 특히 전일 ADP 민간 고용보고서 부진으로 촉발된 경기 회복 속도 둔화를 일부 완화 시켰다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이러한 고용지표의 양호한 결과는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결과에 대한 기대 심리 또한 유입되며 10년물 기준 1.21%로 상승. 더불어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 했으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 영향으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곡물은 혼조세를 보였는데 날씨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며 밀은 하락했으나 옥수수과 대두는 상승. 다만, 12일 발표되는 미 농무부의 보고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양상.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70%, 철근은 1.25% 하락.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09	+1.38	-6.15	Dollar Index	92.266	-0.00	+0.44
브렌트유	71.29	+1.29	-5.07	EUR/USD	1.1834	-0.03	-0.45
금	1,808.90	-0.31	-1.47	USD/JPY	109.77	+0.26	+0.26
은	25.29	-0.66	-1.90	GBP/USD	1.3927	+0.27	-0.23
알루미늄	2,588.00	+0.84	-0.14	USD/CHF	0.9066	-0.02	+0.04
전기동	9,491.50	+0.27	-3.38	AUD/USD	0.7400	+0.28	+0.05
아연	3,028.50	+1.85	+1.02	USD/CAD	1.2499	-0.33	+0.41
옥수수	553.00	+1.14	-0.63	USD/BRL	5.2235	+1.06	+2.80
밀	712.75	-0.63	+1.06	USD/CNH	6.4615	-0.02	+0.06
대두	1,328.50	+0.21	-3.57	USD/KRW	1,143.70	+0.01	-0.24
커피	176.90	+0.71	-9.97	USD/KRW NDF1M	1,143.49	-0.19	-0.0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20	+3.82	-4.91	스페인	0.204	-2.50	-6.80
한국	1.872	+1.00	-2.00	포르투갈	0.099	-2.80	-8.00
일본	0.007	+0.10	-1.40	그리스	0.534	-0.90	-6.60
독일	-0.498	+0.30	-4.80	이탈리아	0.529	-2.30	-9.5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